

“국제 경쟁력 약한 한국 대학… 비전 모색을”

20여개 대학 ‘서울총장포럼’ 발족

서울 지역 대학 총장들이 “대학의 혁신 없이는 우리나라 미래가 암담하다”며 고등교육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모임 ‘서울총장포럼’ (회장 이용구 중앙대 총장)을 25일 발족한다.

서울총장포럼은 창립 취지문에서 “우리나라 대학 교육 체제가 여전히 구시대적 이어서 국제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이 위기의 출발점이며, 세상의 변화 속도는 매우 빠르는데 대학은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변화

하다 보니 대학 교육이 국가와 사회 발전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대학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담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역량을 모으고자 한다”고 밝혔다.

25일 열리는 1회 포럼에서 중앙대 이용구 총장이 ‘대학의 미래 비전과 한국 고등교육의 현주소’를 주제로 발표한다. 건국대, 서울시립대, 가톨릭대, 세종대, 숭실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 20여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연주 기자

중앙일보

2015년 03월 25일 수요일 023면 사회

서울 대학총장들 “반성합니다”

“사회가 원하는 인재 키우기보다 가르치기 쉬운 지식만 주입… 대학 위기 방관”

20여개 대학 ‘서울총장포럼’ 출범 미래비전·구조개혁 등 논의키로

“각자 자기 대학 살기만 바빴지, 대학의 미래에 대한 본질적 고민은 없었죠.”

25일 출범하는 서울총장포럼 이용구(60·중앙대 총장) 회장의 말이다. 이 회장은 포럼 창립 목적을 “대학의 위기를 방관했던 총장들 스스로 반성하고 고등교육 체계의 근본적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포럼에는 중앙대를 비롯해 세종대·숙명여대·숭실대·이화여대 등 서울지역 20여개 대학이 참여한다. 서울지역 총장들이 포럼 형식으로 뭉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장은 포럼 창립 배경과 관련해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대학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구시대적이어서 대학교육이 국가와 사회 발전에 도움이 못 되고 국제 경쟁에서도



서울총장포럼 회장을 맡은 이용구 중앙대 총장.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학이 맞는 미래와 관련해 “피터 드러커는 30년 후 지금 같은 대학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한다”며 “근본적인 혁신이 없으면 대학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도 암울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간 한국 대학이 보인 나태함을 비판했다. 그는 “사회가 원하는 인재 키우기보다 본인들이 익숙하고 가르치기 쉬

운 지식들만 주입해 왔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우리는 현실에 안주했다”고 했다.

정원감축과 정량평가 일변도의 교육부 구조개혁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학생 선발 때는 정성평가를 많이 하라고 하면서 대학을 평가할 때는 정량평가만 한다. 대학을 줄세우다 보니 미래를 고민하기보다 점수 몇 점 올리기에 급급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서울총장포럼은 이처럼 대학이 처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고 미래 대학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1차 총회는 2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이 회장이 ‘대학의 미래 비전과 한국 고등교육의 현주소’를, 숙명여대 황선혜 총장은 ‘한국 대학의 내부환경’을, 서강대 유기풍 총장이 ‘한국 대학의 외부 환경’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 총회에선 정부의 대학평가와 구조개혁 방향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서울 지역 대학총장들 한 자리에

오늘 프레스센터서 총회

정원 축소 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대학가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서울 지역 총장들이 뭉친다.

서울지역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서울총장포럼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회 총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이용구 중앙대 총

장의 '대학의 미래 비전과 한국 고등교육의 현주소'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황선혜 숙명여대 총장과 유기풍 서강대 총장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최근 위기에 처한 대학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자는 취지로 구성된 이번 포럼의 초대 회장은 이용구 총장이 맡았으며, 20여개 대학이 참여할 예정이다. 조윤주 기자

한국경제

2015년 03월 25일 수요일
A37면 people

서울지역 대학 총장 '서울총장포럼' 발족

서울지역 대학 총장으로 구성된 '서울총장포럼'이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회 총회를 연다. 초대 회장을 맡은 이용구 중앙대



총장(왼쪽)이 '대학의 미래비전과 한국 고등교육의 현주소'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고 황선혜 숙명여대 총장(가운데), 유기풍 서강대 총장(오른쪽)이 각각 '한국 대학의 내외부 여건'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총회에는 20여개 대학 총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은 창립 취지문에서 "대학 교육 체계가 여전히 구시대적이어서 국제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이 위기의 출발점"이라며 "대학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위기 극복의 방안을 담은 비전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20여개대 총장 포럼 “대학들 변화에 너무 수동적”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들이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 이공계는 부족하고 인문계는 남아 도는 ‘인력 미스매치’ 현상을 보면 우리가 반성해야 한다.”

25일 발족한 서울 총장 포럼을 통해 20여 개 대학 총장들이 자성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학의 미래 비전과 한국 고등교육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연설한 이용구 중앙대 총장은 “국내 대학 학과들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의식이 강하다”며 “학과 폐쇄성을 유연하게 가져가야 산업 수요에 맞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장들은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는 빠르는데 대학은 지나치게 수동적이다 보니 국제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다.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역량을 모으고자 한다”며 서울총장포럼 창립 취지를 밝혔다.

문일호 기자



25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 총장 포럼’ 창립총회가 열렸다. 앞줄 왼쪽부터 원운희 서울시립대 총장, 전해정 서울여대 총장, 송희영 건국대 총장, 유기봉 서강대 총장, 이용구 중앙대 총장,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황선혜 숙명여대 총장, 구기현 상명대 총장, 뒷줄 왼쪽부터 이정구 성공회대 총장, 신구 세종대 총장, 정창근 동국대 총장 직무대리, 강신일 한성대 총장, 한현수 숭실대 총장, 김상래 삼육대 총장, 한병문 명지대 부총장. 【황남】

서울신문

2015년 03월 26일 목요일
008면 사회

서울 41개 대학 총장 포럼 발족

서울지역 대학 총장들이 대학가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손을 맞잡았다. 중앙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20개 대학의 총장들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 총장 포럼’을 발족했다. 서울의 41개 대학 가운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은 포럼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지역 총장들이 공식적으로 모여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포럼 회장을 맡은 이용구 중앙대 총장은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 때문에 대학들이 재정적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다”면서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총장들이 함께해야 한다”고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 대학 총장 한자리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총장포럼' 제1회 총회가 열렸다. 서울총장포럼에는 서울 소재 41개 4년제 대학 중 17개 대학 총장이 참여했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절반가량은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총장포럼은 이날 총회에서 대학의 재정운영 자율권 확대와 수익사업 투자 허용 등을 요구했다. 왼쪽부터 박영식 가톨릭대 총장,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 이정구 성공회대 총장, 전혜정 서울여대 총장, 신구 세종대 총장, 송희영 건국대 총장, 정창근 동국대 총장 직무대행, 유기동 서강대 총장, 강신일 한성대 총장, 이용구 중앙대 총장, 한헌수 숭실대 총장,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김상래 삼육대 총장, 황선혜 숙명여대 총장, 한병문 명지대 부총장, 구기현 상명대 총장. 연합뉴스

파이낸셜 뉴스

2015년 03월 26일 목요일 028면 사회

위기의 총장들 “교육체제 구시대적… 경쟁력 없다”

서울 20개大 총장모임 ‘서울총장포럼’ 출범식 “대학재정규제 풀어야”

“조만간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파산 대학이 나올 것으로 본다.” “앞으론 엉덩이가 아프고 서면 발바닥이 아픈 것이 국내 대학의 현실이다.”

서울지역 대학 총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학 위기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털어냈다. 이들은 급격한 학령인구의 감소, 반값등록금 등으로 인한 재정 압박, 온라인대중강의(무크·MOOC) 등 대학 교육 세계화 등에 대한 고민과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중앙대, 숙명여대, 서강대, 동국대, 건국대 등 서울지역 대학 20개가 모인 서울총장포럼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대학 변화, 쓰나미처럼 몰려와
대학 총장들이 보는 위기는 무엇일까. 포럼은 창립 취지문에서 “우리나라 대학 교육 체제가 여전히 구시대적이어서 국제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이 위기의 출발점”이라며 “그간 우리 대학들이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기 보다는 변화에 제대로 따라가지도 못해 자초한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포럼의 초대 회장을 맡은 이용구 중앙대 총장은 국내 대학의 현 주소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를 인용해 “우리나라 대학 교육은 국가 경쟁력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도 털어냈다.

IMD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이수자는 60% 이상으로 세계 2위를 차지했지만, 대학 교육의 질적 경쟁력은 조사 대상국 60개국 중 53위로 꼴찌 수준이었다.

서강대 유기동 총장은 “청년 실업률이 심각해지면서 ‘금방 써먹을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달라’는 기업과 사회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의 본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숙명여대 황선혜 총장은 “대학은 취업인력 양성소가 아니다”며 “지금은 ‘취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많지만 이는 언제든지 변한다. 대학은 기본기가 탄탄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여입학제 등 규제 풀어야
대학 총장들은 재정 압박에 대한 위기감을 잇따라 토로했다.

중앙대 이 총장은 3불(不) 정책의 하나로 대학에서 금지된 기여입학제를 허용하고, 적립금 목적 제한을 폐지에 대학 재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제는 기여입학제를

허용하고, 입학정원·등록금 책정 등 재정운영 자율권을 대학에 줘야 한다”며 “적립금의 목적 제한도 없애 보다 원활한 대학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같은 의견이 포럼의 공동 의견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상당수 대학 총장들은 공감을 표시했다. 유 총장은 “등록금 의존도가 60~70%를 상회하고 기부금 축소 등의 상황에서 대학의 자원 결손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으며, 황 총장은 “학생 수는 줄고 경산비와 장학금은 매년 올라간다. 등록금 인상이라고 하지만 사실 등록금을 회보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대학들이 적립금을 기르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강대 유기동 총장은 “대학이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는지 자기 성찰부터 시작하려고 한다”며 “청년 실업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 대학이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朝鮮日報

2015년 03월 26일 목요일 A01면 종합

청년실업 출구 찾기… 大學이 움직인다

산업현장의 요구에 뒤 안갔던 교육, 학과 구조조정 등 나서 서울 20여 대학 총장 “대학개혁 없인 한국의 미래도 없다”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고용 한파는 20년 전보다 차갑다. 지난 20년간 대졸 이상 고학력자는 145% (1993년 428만명→2012년 1050만명)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대기업·전문직 등 ‘양질의 일자리’는 25% (483만개→602만개) 늘어난 데 그쳤다.

게다가 대학 교육과 산업 현장의 미스매치(불일치)도 심각하다. 대학 졸업생 중 인문·사회계열 학생 비율이 41.5%, 이공계가 35.5%이지만, 삼성·LG 등 대기업에서 채용하는 신입사원은 80%가 이공계다. 이러니 인문계열 졸업생 90%가 노는 의미의 ‘인구론’이란 자조적 신조어가

지 등장했다. 대학 교육과 취업 간 이 갈은 미스매치가 재앙을 낳을 것이란 지적은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정작 대학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뒤늦게 대학들이 “대학 개혁 없이는 우리도, 한국 사회도 미래가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스스로 변화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에 있는 20여개 대학의 총장이 25일 대학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서울 총장 포럼’을 발족했다.

포럼 회장인 중앙대 이용구 총장은 “지

금까지 대학이 공급자 위주 사고로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해왔다”며 “이제는 대학도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기르기 위해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강대 유기동 총장은 “대학이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는지 자기 성찰부터 시작하려고 한다”며 “청년 실업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 대학이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A3면에 계속

김연주·남정마·정경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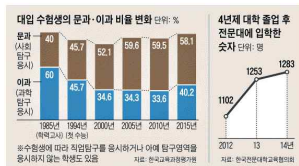
“경영학과 10% 理科 출신 선발”... 대학들 파격 실험

(한양대 2017학년도 입시부터)

대학이 움직인다

○4년제 등록금 날벼락과 전년대 유턴 청년 실업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대학 교육 과정과 일자리 간 심각한 미스매치다. 지난 15년간 늘어난 4년제 대학 재학생 숫자만 42만6000명(1999년 11만명→2014년 152만명). 이 가운데 이공계열 전공자가 11만명 늘어나는 동안, 인문·사회계 전공자는 18만명 늘었다. 고졸노동자는 2012년 발표된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에서 2023년까지 공백 분야는 27만 7000명의 인력이 부족한 반면, 인문·사회계열은 6만1000명의 인력이 초과 공급되고, 자연계열도 13만4000명이 초과 공급된다고 나타났다. 산업계 수요와 정반대로 대학 전공자들이 사회로 배출되는 것이다.

배재대 2년제 4년제 대학 졸업자가 50만명 넘게 쏟아져 나오지만 이 같은 인력 공급과 수요의 심각한 불일치 때문에 숨탄 청년들이 일용직에 입학한 대학에서 미래를 찾기 못하고 고졸과 돈을 남비하고 있다. 임규홍(27)씨는 2007년 수도권 사립대 사회계열 학과에 입학해 2학년까지 다니다가 자퇴한 뒤 지난해 전문대인 대전에 자동차학과에 입학했다. A대를 다닐 때 암세포는 옮겼다고 할 정도로 마약했다. 선생들은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대학이 아닌 학원에서 충당했다. 어영부영 컸을 다치고 휴학했을 때 '기술이 있어야 먹고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니던 대학을 자퇴하고 결국 전문대로 다시 들어갔다.



문과 출신 학생이 더 많은데 작년 삼성·LG 신입사원 공채 80% 이상 이공계 출신 뽑아

입학후 전공 선택·학과 통합 대학, 개혁·구조조정 몸부림 일부 교수들 반발에 실패도

임씨의 대학에 자동차학과 후배인 이상욱(23)씨도 지방의 4년제 대학 광고홍보학과를 1년 다니다 자퇴하고 전문대로 재입학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취업이 정으로 전문대에 다시 입학하는 '유턴(u-turn)족(族)'만 2012년 1102명, 2013년 1253명, 2014년 1283명으로 늘고 있다. 여기에다 입석이나 이과 재입학 4년제를 도중에 그만두고 전문대로 다시 입학하는 숫자는 훨씬 더 많지만 제대로 집계조차 안 된다. 워낙 취입이 안 되니 '고졸(高卒)' 불은 앞자리며 '대졸(大卒)'이 불리는 현상도 두드러진다. 2013년

한 공기기업에서 고졸자 30명을 뽑았는데 27명이 대졸이었다.

대학 교육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도 크다. 한 대기업 인사팀 상무는 "대학생들의 학력 같은 스펙은 전반적으로 훌륭한다. 막상 입사한 뒤에 보면 전공 관련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다른 대기업 인사팀 부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산업 현장의 분위기와 지식수준을 대학에서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바꾸겠다는 대학, 더딘 변화 지금 전 세계 대학들은 공교육 개혁을 추진 중이다. 외국 유명 대학의 강의를 세계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대규모 공개 온라인 강좌(MOOC)'가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대학의 입지도 흔들리고 있다. 미국 MIT(매사추세츠 공대)의 경우 2150여개 대학 강의를 전 세계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수강여대 학생에

충전은 "미국에서는 MOOC에 의해 30~40대 후 오코리언 대학이 200개 정도만 남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말했다.



25일 오후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학생들이 전공 실습으로 자동차 엔진을 분해·조립하고 있다. 올해 신입생인 이상욱(23·오른쪽에서 둘째)씨는 수도권 4년제 대학을 다니다 자퇴하고 3년제 전문대인 대림대에 입학한 '유턴(u-turn)족'이다.

을 63개 학과로 통합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한양대는 2017학년도 입시부터 경영학과 신입생의 10% 이상을 이과 출신으로 뽑기로 했다. 한양대 측은 "미국 MIT 졸업생 상당수가 금융 중심지 월가로 진출하는 등 자연·공학 인재의 금융 진출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고려대는 학생 교육 방법을 강의식에

서 토론식으로 바꾸고, 유턴학자에게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대가 없던 숙명여대는 2016학년도에 공대 2개 전공(항공생명공학부, IT공학부)을 신설한다.

하지만 대학 개혁은 성공보다 실패가 많고, 속도도 더디다. 가장 큰 이유는 학내 반발이다. 중앙대가 최

근 구조 개편안을 발표하자마자 일부 교수들이 "총장에게 대한 불신임을 묻겠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세종대 신구 총장은 "이제 세계 교육 시장이 개방되어 한국 대학들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며 "대학이 기업과 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規制 양산하는 교육부 관료주의가 개혁 발목잡아”

玉石 안가리고 “감원하라”

대학 개혁의 내부 걸림돌이 대학 스스로 젖어있는 타성과 기득권이 라면, 외부 걸림돌은 시대에 뒤쳐진 교육 규제와 관료적 마인드로 대학들 발목을 붙들고 있는 교육부다.

지금처럼 '대졸 백수'를 양산하게 된 구조는 1995년 교육부가 도입한 '대학설립 준칙주의'에서 비롯됐다. '대학설립 준칙주의'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대학 설립이 자유로워지자 1990년만 해도 118개이던 4년제 대학은 2014년 199개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4년제 대학 졸업자 수만 해도 한 해 17만명

에서 30만여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대졸자는 양산됐고, 정원도 못 채우는 부실대도 늘어났다.

그런데 학령 인구가 줄면서 정원을 제대로 못 채우는 부실 대학이 더 늘어나는 게 불 보듯 뻔한 상황이 닥쳤다. 2018년 대학 입학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를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교육부는 뒤늦게 대학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퇴출당한 대학은 6개 대학에 불과하다.

대학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 교육부는 정원 감축과 재정 지원을 연계하는 정책을 내놨다. 이 같은 구조조정 방식은 부실 대학을 퇴출시키고

부실대 정원을 줄이는 게 아니고, 대부분 대학의 정원을 일제히 줄이는 방안이다. 대학들은 "부실 대학은 그대로 놔두고 멀쩡하게 경쟁력을 갖춘 대학들에 학생 정원을 줄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터뜨린다.

교육부 예산 가운데 고등교육(대학교)에 투자하는 예산은 10%에 불과하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 정원, 입시 제도, 등록금 책정 등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을 틀어쥐고 대학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바로 다음 해 재정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울며 겨자 먹기로 교육부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세미 기자

“한국 대학들 오만에 빠져… 교수들 기득권 버려야”

‘서울총장포럼’ 초대 회장
이용구 중앙대 총장 인터뷰

25일 출범한 ‘서울총장포럼’의 초대 회장을 맡은 이용구(사진) 중앙대 총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청년 취업난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한국 대학들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정작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자문하게 됐다”며 “대학들 스스로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대학을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지금까지 대학이 ‘공급자 위주’의 사고에 빠져 오만했다고 털어놨다. “아이들이 취업을 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학생들 취업까지 신경 써야 하느냐’고 묻기도 했고요. 오만함에 빠진 교수 사회의 모습이었죠.”

이 총장은 대학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 교수 기득권부터 깨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과라는 성(城)



전국 4년제 대학들 모임으로 대학 교육협의회(회장 부구옥 영산대 총장)가 있지만 대학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대학 개혁이라는 과제를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은 서울의 대학 총장들이 앞장서 ‘대학 개혁’이라는 시대적 화두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중앙대는 전체 단과대 정원을 유지하면서 학생들 선택에 따라 학과 정원은 매년 바뀌는 ‘유동적 학과 정원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특정 과에 학생이 한 명도 없어도 그 전공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교수들 스스로 학

안에서 학생 정원을 확보해 놓고 가르치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 안에 안주하겠다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과라는 좁은 틀에 갇혀 학과 학생 몇 십명만 데리고 평생 가르치겠다고 생각지 말고, 수백명 단과대 학생, 수천명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강의하겠다는 식으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학 개혁이 ‘인문학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결과적으로 ‘인문학 전공자’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대학 내 인문학 강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우리나라 산업계 경쟁력은 세계 10위권이지만 대학 경쟁력은 50위권”이라며 “그 원인은 우리 대학이 안이했고 오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학문 분야가 계속 나오는데도 국내 대학은 학과 이기주의 등으로 새 분야를 제대로 연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총장은 “앞으로 청년들의 고민을 대학들이 진심으로 귀담아듣고,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안석배 기자

〈개방형 온라인 강좌〉

“MOOC에 밀리는 영어권大 존폐 기로 국내大 강의도 국제경쟁시대 닥친다”

17개대학 ‘서울총장포럼’ 창립

“학령인구 감소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아직 정원을 채우는 데 걱정이 없다는 생각으로 안이하게 대처했다.” (이용구 중앙대 총장)

“무크(MOOC)의 파급력은 대학의 시스템 전반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가져왔다. 3년 전 내 강의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의 무크 강의를 같은 주제였는데 비교될 수밖에 없어 부담이 컸다.” (황선혜 숙명여대 총장)

“국내 대학은 안팎으로 도전과 압박을 받고 있다. 앞으면 엉덩이가 아프고, 서면 발바닥이 아픈 상황이다.” (유기풍 서강대 총장)

서울지역 주요 대학 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학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와 해결 방안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냈다.

중앙대 숙명여대 서강대 세종대 건국대 서울시립대 등 서울지역 17개 대학 총장들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총장포럼’을 창립했다. 이 모임은 지난해 12월부터 대학의 문제의식을 같이한 몇몇 총장이 모인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초대 포럼회장을 맡은 이용구 총장은 “대학이 그동안 국가와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팽배하다”며 “이런 위기가 올 때까지 그동안 총장들이 무엇을 했으며 국민에게 무슨 희망을 주었는가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창립 취지를 밝혔다.

이날 가장 뜨거운 주제는 바로 ‘무크’였다.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공개수업을 뜻하는 무

크는 2000년대 초반 유럽에서 시작됐으나 2010년경부터 미국에서 급속히 성장했다. 교육전문기업들이 아이비리그로 불리는 세계적 명문대와 손잡고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 스탠퍼드대, 프린스턴대, 펜실베이니아대, MIT 등 명문대들이 학내 강의를 수많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공개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2400여 개의 강좌가 개설됐다.

무크는 기존 ‘강의실 강의’에 안주했던 대학들에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유기풍 총장은 “이미 필리핀 인도 등 영어권 국가에서는 무크와의 경쟁에서 밀린 대학들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며 “냉정하게 말하면 한국은 단지 영어권이 아니라는 언어장벽 하나 때문에 버티고 있다”고 진단했다. 머지않아 국내 대학이 미국의 세계적인 명문대와 ‘강의의 질’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온다는 것이다.

총장들은 “결국 해법은 대학 강의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학에 더 많은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사립대가 등록금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고 기여입학제도 허용해야 한다”며 “대학 적립금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목적 제한을 없애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유 총장은 “경제가 어려워 대학에 대한 기부도 줄어드는데 학부모와 학생은 더 나은 대학교육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 대학과 실리콘밸리가 함께 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한국의 대학들도 돌파구를 찾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서울지역 대학 총장들이 25일 ‘제1회 서울총장포럼’을 열고 대학사회의 위기와 해법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초대 회장을 맡은 이용구 중앙대 총장(앞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은 “피터 드러커는 기존 대학이 변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30년 뒤 현재의 대학제도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견했다”고 말했다.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서울 20개 대학 총장 ‘대학의 미래’ 찾다

“세계 명문대 온라인 강좌가 한국 대학 위협”

(MOOC·무크)

“세계 명문대학들이 운영하는 무크(MOOC·개방형 온라인 강좌)의 확산은 한국 대학들엔 위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처럼 강의실에서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안주할 때가 아닙니다.”(이용구 중앙대 총장)

서울 주요 대학 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MOOC 확산과 전통적인 대학교육 방식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25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총장포럼’ 창립총회 자리에서다. 서울총장포럼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숙명여대 등 서울지역 20개 대학 총장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총회의 화두는 미국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세계적인 명문대학들이 주도하고 있는 ‘국경 없는 콘텐츠 전쟁’이었다.

이들 대학은 수강 인원 제한 없이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개방형 온라인 강좌를 개설해 놓고 있다.

코세라(Coursera) 에덱스(Edex) 등과 같이 개별 대학의 온라인 강의를 모아놓은 MOOC 사이트에 접속하면 누구나 하버드대 예일대 스탠퍼드대 MIT 등이 제공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강좌를 들을 수 있다.

이미 코세라 한 곳에서만 지금까지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5일 열린 ‘서울총장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들이 박수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 전해정 서울여대 총장, 송희영 건국대 총장, 유기홍 서강대 총장, 이용구 중앙대 총장,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황선혜 숙명여대 총장, 구기현 상명대 총장, 두번째줄 왼쪽부터 이정구 성공회대 총장, 신구 세종대 총장, 정창근 동국대 총장 직무대리, 강신일 한성대 총장, 한현수 숭실대 총장, 김상래 삼육대 총장, 한병문 명지대 부총장. 연합뉴스

“영어권은 대학 교육 대체 강의실서 안주할 때 아니다”

2200만명의 수강생이 세계 114개 대학에서 제작한 830여개의 강좌를 수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기홍 서강대 총장은 “영어권 국가에선 MOOC가 빠른 속도로 전통적인 대학 교육을 대체하고 있다”며 “강의 대부분이 영어로 진행되는 것이 국내 대학들이 MOOC 열풍에도 그나마 버티고 있는 이유”라고 진단했다.

총회에선 학과제 폐지 등 대학 구조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최근 학과제 폐지를 골자로 한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안’ 추진 과정에서 교수, 학생들과 내홍을 겪은 중앙대 사례가 주로 거론됐다.

이 총장은 “한국 대학에선 학과가 유명 공동체와 같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생각이 박혀 있다”며 “교수들이 자신의 학과생들만이 아니라 단과대생, 넓게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들려주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내린 대학들의 재정 압박이 한계에 달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선혜 숙명여대 총장은 “지난 7년간 등록금을 사실상 인하해왔다”며 “이제는 등록금을 인하하기 전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창근 동국대 총장 직무대리는 “대학 기부금에 대한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올해는 기부금 모금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가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선표기자 rickey@hankyung.com

한국일보

2015년 03월 26일 목요일 A10면 사회

서울 주요 대학 총장포럼서 기여입학 허용·등록금 자율화 등 요구

중앙대·서강대 등 17개대 참여 3불 정책 반대 발언 파문 예상

서울의 주요 대학 총장들이 기여 입학제 허용과 등록금 책정 자율화 등의 ‘규제 완화’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본고사, 고교등급제와 함께 금지된 기여입학제를 허용해 달라는 것은 그 동안 대입 정책의 근간이 됐던 ‘3불 정책’을 허무는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용구 중앙대 총장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회 서울총장포럼’에서 “사립대학에 등록금 책정 등 재정운영 자율권을 부여하고 기여입학제를 허용해야 한다”며 “장학금 등에만 사용하도록 한 대학 적립금도 수익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서울총장포럼은 서강대, 중앙대 등 서울지역 4년제 대학 17곳의 총장이 참여해 대학의 미래 비전을 찾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기여입학제 허용을 주장한 이용구 총장은 이 포럼의 초대 회장을 맡았다. 다만 이 총장은 “개인의 생각일 뿐 포럼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 총장들도 이 총장의 발언에 지지의

사를 밝혔다. 황선혜 숙명여대 총장은 “경상비 상승, 장학금 확대 등 등록금 인상 요인이 많았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최근 7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 왔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등록금 인상이 아니라 등록금 회복이란 표현을 쓰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유기홍 서강대 총장은 “대학 재정의 70%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 기부금도 줄고 있다”며 “오죽하면 등록금 인상 이야기가 나오겠느냐”고 토로했다.

하지만 서열화된 대학 구조 속에서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는 서울 주요 대학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

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여 입학제 허용, 등록금 자율화가 실시될 경우 서울 주요 대학과 지방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서울 시내 대학들은 전국 30위 안의 대학들로 서열화된 대학 체계 내에서 학생 수 급부전 예산 지원까지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며 “중앙대의 등록금이 지방대보다 월등히 높은데도 학생들은 중앙대를 선호하는 서열 구조 속에서 이들 대학들은 더 큰 특권을 누리겠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윤기자 cdragon25@hk.co.kr
양진하기자 realha@hk.co.kr

교육부가 엉터리니 대학총장들이 개혁 외친다

서울 지역 18개 대학 총장들이 그제 '서울총장포럼'을 발족하고 대학 개혁과 미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포럼의 초대 회장을 맡은 이응구 중앙대 총장은 "미래 대학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고민을 공유하는 자리다. 앞으로 의견을 취합해 정부나 국민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신구 세종대 총장은 "국내 대학끼리 경쟁하자는 것보다 국외 대학과 경쟁하자는 취지에서 모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총장들이 '대학의 혁신 없이는 우리나라의 미래도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에 자성의 목소리를 낸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내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반값 등록금 이슈로 인한 재정적 압박으로 전례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러나 더 큰 위협은 해외 명문 대학들이 운영하는 무크(MOOC·개방형 온라인 강좌) 확산으로 전통적 대학교육 방식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30년 내에 현재의 대학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무크야말로 핵폭탄이 될 수 있다.

대학 위기는 시대적 변화에 눈과 귀를 닫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안주해온 탓이다. 현재 대학교육과 산업현장의 미스매치(불일치)는 심각하다. 대학 졸업생 중 인문계는 41.5%, 이공계는 35.5%지만 대기업들은 80% 이상을 이공계에서 뽑고 있다. 사회 요구에 맞춰 학과를 구조조정하려는 시도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교수들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최근 중앙대가 학과를 폐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학교 안팎의 비난에 부딪혀 단과대학 단위로 모집하는 수정안으로 후퇴한 것은 대학이 얼마나 변하기 어려운 집단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대학이 취업학원이나"는 비아냥도 있지만 대학은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청년실업률이 최악인 상황에서 졸업생이 취업을 하든 말든 구시대 상아탑만 고집해서야 되겠는가.

8월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앞두고 대학마다 강력한 개혁안을 쏟아낼 예정이어서 엄청난 진통이 예상된다. 대학은 사회에서 환영받을 인재를 키워내고, 뒤쳐진 국제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개혁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大學 개혁 더 미룰 수 없는 한계 도달했다

중앙대·서강대·이화여대 등 서울 지역 20여 대학 총장들이 25일 '서울총장포럼'을 발족해 대학 개혁 방안 모색에 나섰다. 참가 대학들은 "지금까지 대학들은 공급자 위주의 사고에 갇혀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해왔다. 대학도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기르기 위해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대학 총장들이 자구책(自救策)을 모색하고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대학이 학생들에게 졸업 후 비전을 약속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졸업 후 사회에 나와 봐야 기다리는 것은 실업자(失業者), 신용불량자 신세일 뿐이다. '인문계 9할이 높다'는 '인구론'이라는 자조(自嘲)가 나돌 정도다. 대학생 신분을 갖고 있어야 그나마 취직에 유리하다고 졸업을 미루고 9학기 이상 등록한 '대학 5학년생'이 지난해 12만명에 달했다.

어제 자 조선일보엔 수도권 사립대에 들어갔던 임모씨가 2학년까지만 다니고 어느 전문대에 다시 입학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그제는 서울의 어느 대학 인문대를 수석 졸업한 이모씨가 모교 근처에 토스트점을 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개인 사정이 있겠지만, 대학이 학생들에게 사회 진출 후 경쟁을 뚫어낼 실력을 쌓게 해주었더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진 않을 것이다.

미국 대학들은 '아카데미카 캐피털리즘'을 모토로 변신(變身)을 시도한 지 20년이 넘었다. 고리타분한 상아탑 테두리를 벗어나 지역사회, 산업계와 손잡고 벤처기업처럼 움직이면서 혁신을 선도한 것이다. 대학이 지역 기업들에 기술 컨설팅도 해주고 특허 등록을 돕고, 기업이 요구하는 과목을 개설한 후 학생만이 아니라 직원들 연수까지 시켜주고 있다. 산학 협력을 통해 자체 수입원을 발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현업(現業) 커리어도 쌓아줄 수 있다.

중국의 실리관벨리라고 할 수 있는 베이징의 중관촌(中關村)

에서도 베이징대·칭화대 등을 졸업한 주림허우(九零後·1990년대 이후 출생 세대)들이 곳곳의 카페에 모여 서로의 기술을 융합한 벤처 창업에 열중하고 있다. 교수들의 창의와 혁신을 보고 배운 진취적 학생들이 10년, 20년 뒤 중국을 끌고 가는 기둥이 될 것이다.

우리 대학도 이런 혁신과 자원의 공기가 뒤덮게 만들어야 한다. 30~40년 전부터 유지돼온 학과 분류와 커리큘럼 구조를 고수하면서 '2010년대 세대'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는 건 학생을 교수 밥벌이 수단으로 삼겠다는 뜻일 뿐이다. 조선일보와 인더뷰한 미국 인디애나 대학의 마이클 맥로비 총장은 "학생들 취업 능력 키워주는 게 대학의 의무"라고 했다. 인디애나 대학은 2012년 체육학·보건학·여가학을 묶어 공공보건학부를, 올해는 커뮤니케이션·문화·저널리즘을 통합해 미디어스쿨을 만들었다. 사회의 새로운 수요에 맞춰 끊임없이 대학의 학과·커리큘럼을 개조(改造)해 나가는 것이 성공하는 대학이다.

앞으로 취학 인구가 급격히 줄기 때문에 대학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방대·전문대를 살려야 한다면 모든 대학에서 일정 비율씩 정원을 감축시키는 정책을 밀고 나가고 있다. 그걸 위해 교육부가 일일이 평가지표를 작성하고, 평가 후 제재 집행도 손에 쥐고 있다. 그러니 대학들은 퇴직 교육 관료를 받아들여 로비 장구로 활용하려 안달이다. 이런 식으로 연명(延命)하는 '좀비 대학'들이 늘려 있는 한 일자리를 향한 청년들의 절박한 방향(彷徨)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대통령이나 총리 직속으로 대학개혁위원회라든가 발족시켜 한계에 도달한 대학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부실 대학을 퇴출시키고, 어느 대학에나 난립한 중복(重複) 학과를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 대학이 살고, 기업도 좋은 인재를 공급받고, 국가 장래도 기약할 수 있다.



포럼

최홍석

고려대 교수
행정학

■ 지금은 신(新)영웅시대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경제가 세계화한 요즘에는 한 사람의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스마트폰, 페이스북, 아마존, 알리바바 등이 그렇고, 의료보험이 없던 3200만의 미국민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해 국가의 의료비 지출을 오히려 줄이는 것도 누군가의 생각에서 비롯됐다.

사람의 생각을 조련하고, 세상에 유용한 것을 상상할 수 있게 함을 본령으로 하는 기관이 바로 대학이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그 대학 졸업생 14만 명이 창업한 회사의 숫자는 모두 3만9900개이고, 이들이 만든 일자리 수는 540만 개다. 그리고 이 기업들의 연간 매출은 2조7000억 달러다. 2003~2006년 기준으로 매사추세츠공대(MIT) 출신이 창출한 일자리도 220만 개이고, 매출은 2조 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2014년 국내총생산(GDP)이 1조4500억 달러니까, 두 대학 출신이 만든 기업들의 연간 매출은 우리나라 GDP의 3배가 넘는다. 그리고 미국의 2014년 GDP 17조5000

대학, 규제 일변도로는人材 못 키운다

억달러의 4분의 1이 넘는다. 이것이 대학의 사회에 대한 기여다.

21세기 지식사회에서 대학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역할이 이러할진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의 질적 경쟁력은 53위로 전체 국가 경쟁력 26위에도 한참 못 미친다. 대학이 국가 사회의 발전을 끌고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며칠 전 서울의 20개 대학 총장이 모여 '서울총장포럼'을 결성하고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위기 상황 타개 방안에 관해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갈 만한 대학'이 별로 많지 않다. 갈 만한 대학이란 그곳에 가서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잘 배우고 깨우칠 수 있는 대학이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과 상상력으로 무장한 크고 작은 미래의 영웅을 만들어내는 대학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깨우침을 주는 정도보다는 입학이 어려운 순서로 결정된다. 대학들이 얼마나 잘났든, 못났든 간에 입학이 어려운 순서는 늘 있게 마련이다. 우리 대학들이 입시 점수를 큰 자랑으로 삼고 땅 짚고 헤엄치듯 대학을 운영하는 동안, 다른 나라의 대

학들은 저 앞으로 달려갔다.

대학들이 제공하는 교육이 엇비슷하고, 입학 후에 어떻게 가르쳤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니,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유인이 별로 없다. 미국 컬럼비아대의 경우 그 대학에 학생을 보내는 학부모는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비싼 등록금을 내는 데도 주저하지 않는다. 질 높은 교육이 과도하리 만치 많은 등록금으로 유지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대학 교육은 질 낮은 교육, 규제, 등록금 인하 압력 등이 서로 맞물리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석·박사 인력이 대부분 몰려 있고, 뜻있는 젊은이들이 인생의 가장 활발한 시기를 보내는 곳이 대학이다. 그래서 대학은 우리나라의 미래 모습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2, 제3의 삼성과 현대를 만드는 인재(人材)도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 대학 교육이 맥빠진 상황에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상상력과 창조력이 만들어질 수 없다. 대학은 스스로 과감히 혁신하고, 정부는 지식과 창조 사회에 걸맞은 고등교육 투자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정립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도 21세기의 크고 작은 영웅들을 만들 수 있다.